우리의 삶을 양보하십시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갈 1:16).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양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 우리의 '안방'을 비워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과 측정에 따라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도록 양보하는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혀 기대하지 않는 가운데 설교나 만남 중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예상한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단지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러한 자세가 곧 주님께 우리의 삶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기를 기대하되 내 생각대로 오실 것이라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알아도 주님은 어느 때나 상관없이 우리를 간섭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주님의 역사에 우리는 깜짝 놀라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때에."

항상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도록 하십시오. 언제나 기대에 찬 상태에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양보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양보하십시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갈 1:16)

양보하는 법!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묵상을 열고 있습니다. 챔버스가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안방'을 내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안방'이 의미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가장 내밀하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방입니다. 아무도 손님에게는 안방을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안방을 내어주는 경우는, 그분에게 마땅히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차지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또한 겸손히 무릎 꿇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전적인 위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우리가 함부로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위임은 전적으로 그분의 방식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말이죠.

"우리가 예상한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단지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러한 자세가 곧 주님께 우리의 삶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기를 기대하되 내 생각대로 오실 것이라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알아도 주님은 어느 때나 상관없이 우리를 간섭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오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 '안방'을 내어드렸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우리가 안방을 내어드린다고 해도, 친밀한 관계가 없는 한 그분은 우리에게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챔버스의 말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언제라도 들어오실 수 있는 심령의 사랑방을 마련해두라."**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새번역)** 그리고 조카 롯을 위해 중보 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묵상에서 챔버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양보하는 방법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1. 항상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2. 늘 기대에 찬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갈망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기대감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대감이 없는 것은 이미 스스로 예측하고, 내 계획대로 되기만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데 방해 요소가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당시니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도록 하십시오. 언제나 기대에 찬 상태에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양보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양보하면 '기대'가 생깁니다. 양보하는 순간,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언제든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기 때문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순종]**에 보면, 챔버스가 6개월 동안 미국 신시내티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 1906년에 영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때 그의 편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는 점점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며 제 계획은 종종 하나님을 방해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때, 성령님의 역사를 강하게 경험하던 때 했던 고백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샘솟는 자유' 그리고 '생명력 있는 진리'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한줄 노트 우리의 삶을 양보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자유로운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묵상 질문 오늘 당신의 삶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나요?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봅시다.

묵상 레시피 ▌ 출애굽기 14:10-31 + 갈라디아서 1:16
오늘 이스라엘이 만난 문제는 무엇입니까? (1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의 규모와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17-18, 출12:37-38, 14:7 참고)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1-12절)
왜 그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모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13-14절)
14절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까? (16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16절)
애굽과 이스라엘 진에는 각각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9-22,29절, 23-28절)
사건의 결말은 어떠했습니까? (18,30-31절)

가만히 있을지니라(14) (히)타하리슌
기본형은 (히)하레쉬. 잠잠하다, 말이 없다, 귀먹게 하다.
기본적으로 '말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짧은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것을 스스로 계획하며 살고 싶습니다.
제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너를 이끌어 가게 하라.
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믿어라.
내가 너를 이끌어 가는 곳이
네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소망들이
이루어질 곳이라는 것을.”

주님, 주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 손을 열어 주소서.
제 손을 펴 주소서.

헨리나우웬_ 제 손을 펴 주소서(1932-1996, 가톨릭 신부) 「사귐의 기도」235